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박지은 기자



평양 대동강 변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지금 넘어가볼까요.”

지난 2018년 4월27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정상 간에 오갔던 대화다. 남과 북을 번갈아가며 경계를 넘었던 두 정상이 만들어낸 그림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이었다. TV는 남북 정상이 선을 넘나드는 모습과 환호하는 외신의 표정, 눈물을 흘리는 이산가족의 모습 등을 끊임없이 리플레이하며 흥행을 예고했었다.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드라마는 끝난 것일까?

서울역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평양과 신의주, 베이징을 거쳐 베를린, 파리까지 기차여행을 하는 날은 오지 않는 걸까?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

다시 한번 ‘선을 넘는’ 것 이상의 반전이 펼쳐지길 바라지만 남북관계의 매듭은 더 이상 풀리지 않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경색은 깊어졌다.

평화는 다시 멀어졌다.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를 알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최대 유산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협력 분위기는 삼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되면서 북한은 지난 6월16일, 남북 4·27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리고 폭파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

언 이전의 냉전시대로 역행한 분위기다. 북미관계 결렬의 불통이 남북관계에까지 튀는 바람에 서울과 평양의 소통창구까지 얼어붙었다.

남북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된 지금, ‘평화, 새로운 시작’을 열었던 2018년이 그리운 건 사실이다. 기자들 사이에선 ‘평양 주재기자’를 하고 싶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고, 나 역시 ‘북한 전문 기자’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 해 8월, 9박 10일간 평양에 머물며 이곳저곳을 취재했기에 열망은 더욱 높아졌다. 9박 10일 방북기간 동안 방북단과 북측 관계자들과 한목소리로 외친 구호는 ‘평창! 평양! 평화!’였을 정도로 평화는 당시, 내 손에도 잡힐 듯한 느낌이었다. 평양 취재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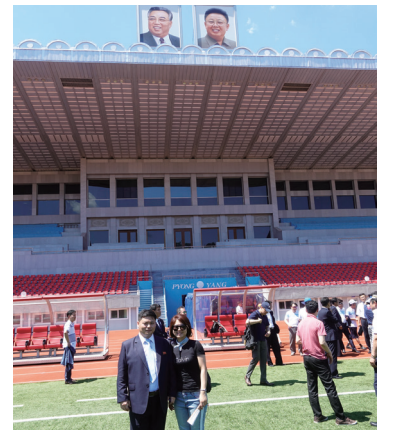
각했는데 이젠 아득한 추억이 됐다.

2018년 여름, 나는 151명으로 꾸려진 현 정부 첫 남북 민간 사절단에 합류, 서해선 육로를 통해 개성을 거쳐 평양 땅을 밟았다. (사)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군부 소속인 4·25체육단이 평양에서 공동 주최한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15세 이하 남북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 강원도가 주요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강원도 대표 선수단으로 강릉 주문진중학교가 참가해 평양 김일성종합경기장에서 북측 축구 꿈나무들과 경기를 펼쳤다. 승패를 떠나 남북 청소년들이 하나 된 모습은 남북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7만 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한금석 강원도의회의원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취재진 등 민간방북단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김일성종합경기장에서 북측 남성 안내원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사진 촬영



김일성종합경기장에서 북측 남성 안내원과 함께한 모습

은 강릉 주문진중과 북한체육단을 동시에 응원했다. 뜨거웠던 경기 후 남북 청소년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트랙을 돌았다.

지금도 그 장면은 눈에 선하다. 누가 남쪽 청소년인지, 누가 북쪽 청소년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 다시 만나자! 우리 민족끼리!’라는 외침이 경기장을 덮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남북 관제자들의 소매는 연신 눈가를 향했다.

평양에 체류했던 9박 10일 동안 많은 부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이 같은 변화상을 본지 ‘여기는 평양’ 코너를 통해 시사각각 보도했다.

북한의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당시 직접 맞닥뜨린 ‘평양의 얼굴’은 한동안 입을 다물 수 없게 했다. 북한 인민들의 가슴팍에 달린, 김일성 부자의 얼굴이 새겨진 붉은색 초상화장만이 감정의 선을

그을 뿐이었다.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 여유롭게 떠다니는 유람선, 미니스커트에 칼힐, 다양한 모양의 선글라스, 형형색색의 양산, 늘어선 택시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바쁜 듯 움직이는 발걸음들...

이곳은 뉴욕? 베이징? 도쿄? 서울? 선명하게 들리는 우리말에 놀라 주위를 다시 둘러보지만, 분명 서울은 아니다. 사람들의 왼쪽 가슴팍에 달려 있는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장이 햇볕을 받아 반짝인다. 평양의 달라진 공기는 곳곳에서 체감됐다. 9박 10일간 묵었던 양각도 국제 호텔의 활기는 장기 억류됐었던 미국인 웹비어의 기억을 지웠다. 로비는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해외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호텔 직원들은 환한 웃음으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호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처럼 밝았다.

47층 규모의 양각도 호텔에서 바라본 야경은 ‘어둠의 도시’라 불렸던 평양의 과거를 무색케 했다. 낮에 내려다본 풍경도 카메라 셔터를 바빠 누르게 했다. 쪽뽕은 대동강 주변으로 40~50층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평양의 랜드마크인 류경 호텔은 단연 위용을 자랑한다. 330m의 스카이라인을 뽐내며 세 개의 수직 삼각형 건축물이 Y자를 만들며 붙어 있다. 류경호텔은 105층짜리이며 객실 3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평양 거리는 변화의 분위기를 적극 반영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집중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는 ‘평양의 강남’이란 별칭이 왜 붙었는지 앞다퉈 드러냈다. 빼곡하게 늘어선 초현대식 고층 건물, 왕복 8차선으로 뻗은 도로, 타원과 유선형에 분홍 코발트 초록 등 다양한 색을 입고 있는 건축물들.

평양은 무채색이 아니었다. 평양의 시계도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시내 곳곳에선 건물 공사가 한창이었고, 자동차와 무궤도전차는 종횡무진이다. 2개 노선인 평양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엔 지옥철이다. 그리고 보니 체제선전물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체류하는 9박 10일 동안 반미 구호 역시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다.

평양 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 도시

미관만 화려한 게 아닐까?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실제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을까? 문득 반공영화 속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가며 의구심이 불을 지핀다. 평양 최대 워터파크인 문수물놀이장과 실내 테니스장엔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평양의 신흥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대동강수산물식당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젓가락을 바빠 움직인다. 철갑상어와 연어 등 화려한 수산물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다. 커플의 데이트는 평양에서도 진행 중이다. 대동강 변 야경을 배경으로 꼭 붙어 사진을 찍는 이들의 모습은 서울과 평양의 거리를 잇게 했다. 또 북한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평양교원대에선 VR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옥류아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북측 여성 안내원과 함께



평양 체류 당시 보도한 <여기는 평양, 사진으로 만나는 북한사람들> (강원도민일보 2018년 8월15일 자 5면)

동병원에서는 원격의료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 이 같은 평양의 변화상을 보면서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평양은 바람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인식은 거북이었다는 것.

바람과 거북은 만날 수 있을까. 평양에서 돌아온 후 3개월이 지나 희소식이 들렸다.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은 냉전과 분단의 땅인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철원 DMZ에선 남과 북의 군인들이 손을 맞잡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평양 체류 당시 보도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및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등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8년 8월20일 자 4면)

기초작업인 한국전쟁 전사자 남북공동 유해발굴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리고 남북정상은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도 합의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평화의 한 해가 된 2018년에서야 비로소 10년 만에 다시 열릴 듯했다. 또 전 세계 유일 분단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인 금강산 병해충 방제를 비롯해 북강원도 연어 방류 사업, 체육교류와 문화예술교류 등 각 부문 남북교류사업이 금방이라도 재개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북강

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북한의 첫 개척개방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원산과 강원도를 잇는 항공, 해운, 도로 등 남북교통망 구축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이 모든 사안은 평창평화올림픽이 교두보가 됐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남북대화는 단절되고 북미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아 해빙무드를 탔던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그뿐 아니었다. 9·19남북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 남북관계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였다. 한반도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2018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0년 현재. 3년간 한반도 정세는 롤러코스터 처럼 급변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장기 교착상태에 빠졌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사태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남북이 타협할 기회들은 사라지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올해, 느닷없이 김

정은 위원장의 신병을 둘러싼 온갖 억측과 소문은 불안한 한반도 정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4월 중순 불거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CNN을 필두로 국내외 모든 언론이 김 위원장의 사망까지 거론하며 건강이상설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김 위원장은 노동절이었던 5월1일 건강한 모습으로 순천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는 전 세계의 가짜뉴스를 비웃듯 김 위원장의 활동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현상은 남북관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여론 왜곡과 안보 불안, 경제적 손실 등 악영향을 끼쳤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종속변수가 되면서 남북관계 교착과 혼선은 커지고 있다.

문득, 북측 한 인사의 말이 맴돈다. 2018년 8월 평양 체류 당시, 평양에서 평안북도 묘향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았던 북측 민족화해협력위원회 관계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인사는 “가족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동창이 가깝습니까? 옷방에서 아랫방으로 가는 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현실이 참 서글픈데다”라고….



김정은 시대에 조성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모습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제재해제’를 주장하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해법 마련은 더욱 복잡하게 얽힌다. 북미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했다. 미사일 도발도 이어졌다. 한반도 문제는 북미 관계에만 맡겨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민족공조’라는 한민족의 연대를 주목해야 한다.

북측은 이를 강조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이 당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수차례 원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자 북측은 대남적대적 정책으로 회귀했다.

교착된 남북관계 대화 재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

북 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것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였다. 이와 연계해 정부는 4·27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2020년 4월27일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 기념식을 가졌다. 정부는 남측 유일 단절구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9km) 조기 착공을 위해 이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이 사업은 내년 말 착공된다. 북측을 경유,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정책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 하나의 해법은 북측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한 인도적 의료 지원이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 북미만 바라보며 꼬인 부분을 하나하나 풀기 보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과감성도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다시 위기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의 봄은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할 때다! 🌱